

'Have A Nice Day X 전주국제영화제'

5월 5~6일 전주돔서 축제 분위기 즐길 음악 페스티벌 개최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준동)가 영화제 기간인 5월 5~6일 음악 페스티벌 'Have A Nice Day(해브어니사데이) X 전주국제영화제'를 개최한다.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가 팬데믹 이전과 같이 축제의 현장성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예비 관객들의 기대감을 한층 더 고조시킬 소식을 전했다. 그랜드민트페스티벌, 뷰티풀민트라이프 등의 대형 페스티벌을 제작해 온 민트페이퍼와 함께 올해 전주돔에서 음악 페스티벌 'Have A Nice Day X 전주국제영화제'를 개최한다는 것. 영화제를 즐기러 온 관객들이 영화뿐만 아니라 음악으로도 힐링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색다른 행사를 준비했다.

2015년부터 '여행'이라는 컨셉으로 관객들에게 좋은 하루를 선사하기 위해 시작된 음악 페스티벌 'Have A Nice Day'가 올해는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열린다. 영화제와 음악 페스티벌이 만나는 장르적 크로스오버로 생기는 시너지로, 팬데믹을 넘어 일상의 회복을 응원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전주돔에서 함께 즐기는 축제의 연장선이 되어 보다 많은 관객들이 더 활기차게 축제의 분위기를 즐기는



'Have A Nice Day X 전주국제영화제' 포스터.

객들이 더 활기차게 축제의 분위기를 즐기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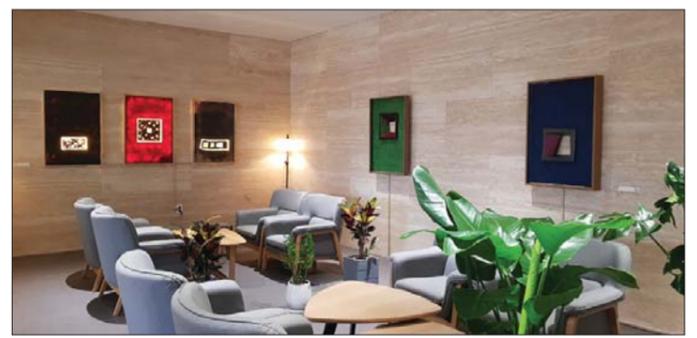
'Have A Nice Day X 전주국제영화제'는 영화제 기간 중인 5월 5일(목), 6일(금) 양일간 전주돔에서 개최된다. 영화제와 음악 페스티벌이 처음 만난 만큼 라인업 역시 탄탄하다. 5일에는 10CM, 소란, 스탠라장, 이민혁, 재만이 출연하고, 6일에는 김필, 선우정아, 홍이사, 데이먼스 이어, kyoko가 출연한다. 타임테이블은 4월 27일(수)에 공개되고, 티켓은 4월 15일(금) 오후 6시 YES24에서 오픈된다.

'Have A Nice Day'와 전주국제영화제와의 특별한 콜라보레이션을 기념하여 전주 시민 대상으로 50% 할인 예약을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할인 대상자는 전주 내 주소지의 신분증 소지자, 전주 내 주소지를 둔 학교 및 직장을 다니는 학생과 직장인으로, 4월 17일(일), 19일(화)에 전주국제영화제 사전 매표소(전주영화제작소 4층)에서 1인 2매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할인 예약은 한정된 수량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는 4월 28일(목)부터 5월 7일(토)까지 열흘간 전주 영화거리 일대에서 개최된다.

/양은경 기자



'세상의 모든 빛을 한지에 담다'

국립전주박물관, 6월 30일까지 한지작품전 개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은 오는 6월 30일까지 상설전시관 1층 로비 작은 갤러리에서 한지작품전 '세상의 모든 빛을 한지에 담다'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옥의 한지문양살 너머로 아련하게 비치는 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김경신 작가의 작품 5점을 선보인다.

이에 따르면 한지와 금속, 조명을 결합해 아름다운 색을 빛으로 연출하는 김경신 작가는 독일 공예 대상(1988)을 수상하는 등 독일에서 20여 년간 활동해 왔다.

그는 한국적 전통이라는 고정관념에 묶이지 않고 세계인의 미감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한지에 채색과 옷칠을 하고 금속과 조명을 결합하는 방법은 한국과 독일에서 특허를 받은 김경신 작가만의 독보적인 기법이다.

현재는 서울 북촌에서 아름다운 전통공예의 뛰어난 솜씨에 세련된 현대의 디자인을 입히는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홍진근 관장은 "전통재료인 한지를 재해석한 현대 작품을 보여주는 한지작품전이 우리가 전통 문화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북도민에게 다양한 예술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문화향유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무주산골영화제 먹거리부스 참여자 모집

무주군이 무주의 푸른 자연 속에서 영화와 함께 여유로운 낭만을 즐길 '무주산골영화제'에서 먹거리를 판매할 먹거리부스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제10회 무주산골영화제 기간 중 무주만의 다양한 향토 농·특산물과 제1·2차 가공품 등 무주군 먹거리 판매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무주군민의 소득증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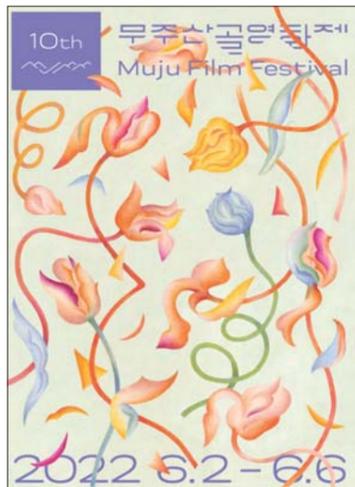
희망자는 오는 27일(오후 6시)까지 참가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신청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소정의 서류를 갖춰 무주군청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접수(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도 가능하다. 봉투 겉면에 '제10회 무주산골영화제 먹거리부스 지원'을 표기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3개월 전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단체 소재지가 무주군으로 돼 있는 개인 및 단체, 제10회 무주산골영화제 행사 참여가 가능한 개인 및 단체다. 문의는 무주산골영화제 사업운영팀(063-245-6400)으로 하면 된다.

부스 별 위치는 최종 선정 후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최종 선정된 개인 및 단체는 영업허가(무주군청 환경위생과)를 받아야 한다.

'산골문화재단'은 메뉴의 특색화와 가격의



적정성, 다른 행사 활동 경력 등을 엄밀히 따져 오는 29일 대상 업체(개인)를 발표할 계획이다. 수달수영장 앞 주차장에서 영화제 기간 동안 10개소 정도 운영된다.

선정된 업체는 위생교육(1회)을 이수해야 하며, 신청서상에 기재된 품목 외에는 판매 금지, 모든 상품 가격과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호원대 K-POP학과 1기 아재프 '트러블' 뛰어난 실력·비주얼로 전세계 팬 호응

호원대학교 K-POP학과 1기 재학생들로 구성된 'Azer(아제프)'가 트러블(trouble)을 발표했다. 13일 호원대에 따르면 걸그룹 아제프는 2021년 3월 4일에 발표한 엘레강테(Elegant)로 주목을 받으며 뛰어난 실력과 비주얼로 전 세계 k-pop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어 두 번째 신곡 트러블은 지난 9일 출시하면서 전세계 팬들의 사랑과 기대가 쏟아지고 있다. (출시 2시간 만에 1회 K조회수 2만 4000회)

트러블은 지난간 옛 연인이 서로를 잊지 못하면서도 그 틈에서 생기는 충돌 등 다양한 문제를 담아낸 곡이다.

딥 하우스(deep house) 장르의 이 곡은 파트가 바뀔 때마다 분위기가 변화되는 편곡으로, 지루함을 느낄 수 없는 트래크 중독성 있는 후렴이 매력적이다. 특히 아제프의 멤버 장주연이 작사와 작곡 등 전체적인 곡 작업에 참여했다.

기존 아제프가 가지고 있던 단순한 조별 과제 이미지를 넘어서 스스로 곡, 컨셉 등 전반적인 참여로 인한 그룹 아제프의 선풍형 아티스트로서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앨범이다.

뮤직비디오에는 호원대학교 기획연출총공 재학생들이 함께 참여했다. 직접 연출부터 촬영까지 참여해 아제프 멤버들과 합을 맞추며, 그들의 매력을 살릴 수 있는 뮤직비디오를 만들어냈다.

/뉴시스

전통혼례 재현 '벽골제 관광지' 주목

김제시, 관광 활성화 위해 6월말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답답한 실내 대신 사방으로 탁 트인 공간을 둘러보며 힐링할 수 있는 여행지가 뜨고 있는 가운데 벽골제 관광지가 주목받고 있다.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벽골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농경문화 유적을 바탕으로 조성된 관광지로서 우리나라 최고·최대의 저수지이며 우리 조상들의 슬기를 엿볼 수 있는 농경문화의 진수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김제시는 벽골제 관광활성화를 위해 2022년 4월부터 6월말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벽골제 명인화당에서 전통혼례를 재현한다.

벽골관광진흥회(대표 송명용)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농악단의 흥겨운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옛날 전통혼례 과정 그대로의 모습을 재현하며 동시에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말로 풀어나가 관광객들이 전통혼례 과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다.

마무리는 풍물패의 선두로 가마를 탄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이동하면서 관광객들과 함께 축하행렬을 이루고 신랑 신부가 축하를 받는



김제시는 벽골제 관광활성화를 위해 2022년 4월부터 6월말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벽골제 명인화당에서 전통혼례를 재현한다.

것으로 끝이 난다.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송명용 문화홍보축제실장은 "매주 전통혼례 재현 공연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를 즐길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벽골제 관광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